

우리나라 전기공학 개척한

春崗 韓萬春박사 가족

우리나라 전기공학계의 선구자로 30여년을 교단을 지키다 지난 84년 64세로 타계한 春崗 韓萬春교수는 일제 때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편집국장을 지낸 韓基岳선생의 장남으로 2남1녀와 두며느리도 박사학위를 받고 교단에서 활약하고 있다. 韓萬春교수의 장남 韓民九교수는 현재 서울대 전기공학과 교수로 봉직하고 있고 동생인 韓萬年·萬靑씨의 가족도 모두 학문의 길을 걷고 있는 과학명가이다.

2남1녀와 두며느리 모두 박사학위 동생 韓萬年·萬靑가족도 과학의 길로

명문 대가로서 월봉(月峰) 한기악(韓基岳)선생의 장남으로 태어난 춘강 한만춘교수는 우리나라 전기공학계의 선구

자로 30년이 넘는 교수생활을 통해 우리나라 전기공학계를 반석에 올려놓는데 크게 기여한 학자이다.

춘강은 지난 84년 64세의 나이로 안타까운 죽음을 맞았지만 서울대 공과대학 전기공학부에는 이런 아버지를 너무도 빼닮았다는 한민구교수가 아버지가 섰던 강단에서 후학양성 및 연구를 통해 춘강이 한 획을 그었던 전기공학의 맥을 잇고 있다.

아버지가 전기공학 교수로

춘강은 경성제국대학(서울대 전신)을 나와 서울대 교수를 역임하였고 한민구교수도 경기고를 나와 서울대를 나와서 현재 서울대에서 교수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한만춘교수가 전형적인 선비스타일의 학자였다면 한민구교수는 다소 조용한 성품이나 제법 굵직한 대형 프로젝트를 산업체와 연계해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등 보다 활동적이라는게 조금 다

春教授回甲記念隨想集獻呈式



▲ 춘강 한만춘 교수님을 기리며

르다 할까. 어쨌든 두사람 모두 마른 체구와 뛰어난 수재형이었다는게 주변 관계자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춘강은 일제시대에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창간 멤버이며 편집국장을 통해 조국 독립운동을 한 월봉 한기악선생의 장남으로 태어나 일찍이 기초과학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전기공학을 공부하기 시작하였다.

춘강은 이런 독립운동을 한 아버지 덕택으로 창씨개명을 하지 않고 버틴 몇 안되는 인사에 속하게 되었다고 한다.

27세 때 서울대서 교편잡아

한민구교수는 아버지가 전기공학을 전공하셨고 또한 이 방면에서 워낙 대기여서 자연스럽게 전기공학을 접할 수 밖에 없었던 필연성도 있었지만 한민구교수도 서울대에 들어갈 때 장학금을 탈 정도로 뛰어난 수재였다고 한다. 한교수가 대학을 갈 당시는 '공업입국을 통해 조국 근대화'를 하기 위해서 공학을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기도 했지만 합리적이고 보편성있는 과

학기술에 자연적으로 가치를 두게 되어 아버지의 대를 이어 전기공학을 전공하기로 결심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점에서는 춘강과 한교수 모두 훌륭한 아버지를 두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 셈이다. 故 춘강을 떠올릴 때 많은 사람들은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과 명쾌하게 일처리를 하는 모습"을 떠올린다. 1948년 약관 27세에 서울대에서 학생을 가르칠 정도로 학문적으로 앞섰던 그는 경성제국대학 이공학부의 전기공학과 1회 졸업생으로, 해방 당시 우리나라의 몇 안되는 전기공학자이다. 뿐만 아니라 58년 영국 노킹검대학교 대학원에서 전력 및 제어기술을 공부하여 2년만에 공학박사 학위를 받은 60년대 초 우리나라 전기공학분야의 유일한 해외박사이기도 하다.

춘강은 조선전업(한국전력 전신)의 발전과장과 기획과장 등 잠깐의 외도를 제외하고 서울대와 전북대 교수를 거쳐 1955년 연세대 이공대학에 부임한 후 1984년 작고할 때까지 30년동안 연세대 학교에 봉직했다. 춘강은 한기악선생처럼 정치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학계 내외에 보직과 많은 사회활동을 하였다. 춘강은 국비유학 후 연대에 복귀하여 국내 최초의 아날로그컴퓨터인 「연세 101」을 제작하여 전기공학과와 기틀을 다졌고, 연대 초대공학부장, 이공대학장 등을 역임하면서 공과대학의 기초를 마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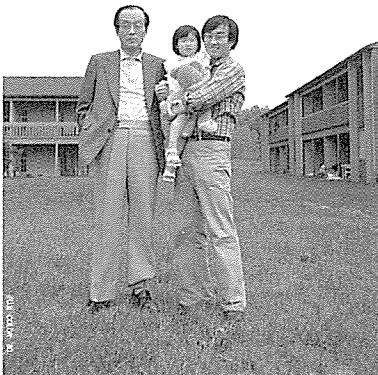
또한 전문대학의 필요성을 느껴 산업대학원을 설립하고 산업대학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학원 발전에도 기여했다. 이 외에도 산학협동의 실현을 위하여 연구기관으로 산업기술연구소를 설립, 초대 연구소장을 역임하였고 컴퓨터센터 초대 소장을 맡았는데 이것은 오늘의 연

세 전산원의 모태가 되었다. 이 외의 사회활동으로는 대한전기학회 회장, 대한전기협회 부회장,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부회장, 학술원 정회원 등을 역임했다.

춘강의 이러한 연세대 전기공학과에서 보여주었던 그의 업적과 공헌을 기리기 위해서 춘강기념사업회가 발족, 올해로 11회째를 맞이했는데 전기 및 전자공학 분야에서 연구업적을 인정받아 학문발전에 이바지한 논문을 선정하여 춘강학술상 시상도 함께 한다. 춘강학술상 시상은 그의 탄생일인 6월26일 즈음에 가능한 맞춰 실시한다고 하는데 1985년부터 시작되었던 춘강기념사업회는 춘강학술상이라는 제도로 우수한 논문발표로 젊은 전기공학도를 수상함으로써 전기공학계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하고 있다. 춘강의 가계를 보면 부인인 이순복 사이에 2남1녀를 두고 있는데 이순복여사 또한 한산 이씨로 당시 숙명여고를 졸업했다.

차남은 과학기술원 교수로

장남인 민구씨는 앞서 설명했듯이 경기도를 나와 서울대 전기공학과를 졸업, 현재는 서울대 공과대학 전기공학부 교수로 봉직하고 있다. 큰 며느리 김선에 씨도 경기도여고를 나와 교육학박사를 취득하고 강사생활을 하고 있다. 이들 사이에는 1남1녀를 두고 있는데 장녀 미현은 이화여대에, 장남인 병준은 중학교에 재학중에 있다. 차남 인구(韓仁九)씨 역시 경기도를 나와 경영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현재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로 있다. 둘째 며느리 서은경씨도 미국에서 도서관박사학위를 받았고 지금은 한성대에서 교수로 봉직하고 있다. 이들 사이에는 병진과 병훈 2남이 있다.



▲ 서울대 공과대학 캠퍼스에서 한민구교수와 한민구교수의 오붓한 한때

고명달 은구씨 역시 경기여고 출신으로 영문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여 현재는 영문과 교수가 되었으며 사위 서병일씨는 중소기업을 경영하고 있다. 이들 사이에 1남1녀가 있는데 장남인 서재선은 현재 과학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이나 앞으로 대학에서 전기공학을 전공하는 게 꿈이라고 한다. 장녀 서재경은 현재 중학교에 재학중이다.

이처럼 춘강의 가계는 그를 제외하고도 5명이나 박사학위를 취득하여 명가의 명분을 이어나가고 있어 주위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한민교수의 작은 아버지인 한만년(韓萬年)씨는 월봉 선생의 대를 이어 출판계에 몸담고 있는 유일한 지손으로 현재 인문사회분야의 출판사인 일조각 대표로 있으며 출판협회 회장직을 맡고 있다. 출판사 일조각은 우리나라 역사서적의 명문으로 한국을 움직이는 1백권의 책중 일조각 책이 가장 많이 수록되는 명예를 안기도 했다.

동생 萬靑씨는 前서울대 병원장

한만년씨의 자녀는 4남1녀로 장남인 성구씨는 서울의대 내과교수로, 차남인 경구씨는 강원대 인류학교수로, 삼남인 준구씨는 서울의대 방사선과교수로, 사남인 흥구씨는 위싱턴대학 국사학 박사 과정을 마쳤고 막내인 승미양은 하버드대에서 인류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이른바 모든 자녀들이 수재인 셈이다. 한만년씨의 지식 또한 장남과 삼남이 과학분야로 한만춘의 가계와 맥을 통하고 있고 나머지 자녀 또한 인문·사회계열분야에서 뛰어난 활약을 하고 있다.

前 서울대학병원장이었던 한만청(韓萬靑)원장이 바로 한민교수의 셋째 작은 아버지인데 한원장은 방사선 중에서도 진단방사선 분야의 권위자로 평소에는

“의공학” 기계를 만드는 데 많은 관심을 보여왔다. 컴퓨터나 통신을 이용한 진료에 누구보다 앞장섰던 한원장은 대한의공학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산·학·연협동에도 남다른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원장은 3녀를 두고 있는데

장녀 숙현은 심리학을, 차녀와 삼녀는 모두 불문학을 전공했다. 고모인 한만중은 서울공대 기계공학과를 나와 동일방직의 최고 책임자로 취임한 윤여경 사이에 2남1녀를 두고 있는데 장녀인 윤선식은 이효성(경희대 산업공학과교수)과 결혼했고 장남 춘식은 연세대학교 방사선과교수로, 차남 호식은 서울공대 기계공학과를 나와 버클리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故 춘강선생이 제자들에게 비친 모습은 ‘엘리트교수’였다고 한다. 춘강은 온화한 성품을 타고 났지만 또한 매우 급하고 민첩하기도 해서 학생들에게 문제를 내놓고 학생이 못 풀고 우물쭈물하면 보다 못한 춘강은 아예 본인이 직접 문제를 풀어버리는 경우도 허다했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자원도 풍부하지 못한 개발도상국이기 때문에 국민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선 산업발전만이 국기를 부강하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열쇠라며 공업입국에 대한 그의 지론을 강하게 피력했다고 한다. 또한 이들인 한민교수에게도 과학하는 사람들이 사회현상을 나몰라라하고 그저 연구에만 몰두하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며 진정한 학자라면 시대적 상황에 따라 엔지



▲ 1958년 영국 유학을 떠나면서

니어들이 어떻게 사회에 봉사를 해야 하는지를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고 가르쳤다고 한다.

장남 韓民九씨 전기학회 논문대상

실제로 한교수가 졸업을 하고 유학을 결심했을 때도 춘강은 현장경험을 익히는 게 좋지 않겠냐고 반대했지만 70년대 초반 국내 산업현장 여건이 그다지 좋지 않아 도미했다고 한다. 한민교수는 또한 공학을 현실세계로 접근하려고 하면 안된다고 역설하는데 20년 전에 인공위성을 공부한 학도가 국내에서 무엇을 하겠냐며 공학은 합리성을 추구해야 할 학문으로 공학이야말로 그 나라의 국력과 경제분석에 가장 민감해야 할 부분이라고 전했다.

한교수는 전기학회에서 논문대상을 수상하는 등 서서히 그의 능력을 인정받고 있지만 아버지께 비하여 반도 못되는 것 같다고 겸손히 전하며 ‘회묵’ ‘정직’ ‘성실’ ‘매사에 최선을 다하고 감사하여야’를 늘 강조하셨던 고 춘강선생의 살아생전에 쌓아놓았던 모든 업적을 누를 끼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뿐이며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업적을 기리는 춘강기념사업회의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했다. 57